

고구려 都城制의 변천

임 기 환(경희대 강사)

1. 머리말
2. 國內期の 都城制
 - 1) 유적의 분포와 현황
 - 2) 국내기 都城의 구성
3. 平壤期の 都城制
 - 1) 평양 전기의 都城制
 - 2) 평양 후기의 都城制
4. 맺음말

1. 머리말

어느 시대나 수도란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며,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수도를 중심으로 편제되기 마련이지만, 고대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대국가에서는 왕과 왕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귀족들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반 민들일지라도 지방민과는 일정한 차별이 있었다. 이는 고대국가에서 수도가 갖는 정치·사회적 중요성이 다른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都城制는 고대 정치사 연구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가 된다. 특히 고구려 도성제는 삼국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나고, 또한 천도 과정에서 도성제가 일정하게 변천하고 있기 때문에, 도성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삼국사기』 등 문헌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都城은 3차례의 천도에 따라 卒本 → 國內 → 平壤 → 長安城으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졸본지역은 定都 기간이 짧아 도성 체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도성제의 변천을 살펴볼 때, 國內·平壤·長安城이 주된 대상이 된다. 그리고 평양과 장안성은 같은 평양 지역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기의 도성제와 평양기의 도성제로 크게 시기를 나누고, 다시 평양기를 전기(平壤)와 후기(長安城)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구려 도성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문헌자료가 소략하기 때문에, 주로 도성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가 대부분이지만, 그 조사 결과도 역시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의 자료 조건상 고구려 도성제의 연구 범위는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 역시 고구려 도성제의 개괄적인 측면만을 다룰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진행된 고고학의 조사 결과를 통해 주로 도성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면서, 특히 천도에 따른 변화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도성의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왕궁을 비롯하여 성곽, 관청, 사원 등 종교적 시설, 시장, 주민 주거공간, 고분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사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전반적으로 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주로 성곽과 왕궁, 그리고 주민 주거공간의 행정적 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2. 國內期の 都城制

1) 유적의 분포와 현황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인 國內城의 위치는 지금의 집안 일대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국내성의 도읍 기간은 기원 3년에 졸본에서 천도한 이후 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420여 년이라는 장기간이다. 국내성 일대의 지리적 조건을 보면, 북으로 방어선의 구실을 하는 노령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남으로 수운의 이점

을 이용할 수 있는 압록강을 끼고 있으며, 그 사이에 비교적 비옥한 충적평야 지대가 발달하여 도시가 자리잡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¹⁾ 또 노령산맥에서 발원하는 通溝河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구불구불 흘러 국내성 서쪽을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通溝 분지는 압록강 중류 일대에 위치한 비교적 큰 평원으로, 동서 길이는 10km, 남북 길이는 약 5km 정도이다. 현재 집안 일대에는 고구려의 도성유적으로 평지성인 國內城(집안현성)과 산성인 丸都山城(산성자산성)이 남아있다.²⁾

國內城은 20세기 초 이래 여러 차례 조사되었다. 특히 1975년~1977년에는 성벽의 구조를 면밀하게 발굴 조사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성안팎 곳곳에서 건설공사를 하다가 고구려 시기의 유물과 건물터를 상당수 발견하기도 하였다. 국내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한 소개가 있기에 여기서는 개괄적인 것만 언급한다.³⁾ 國內城은 평원에 자리잡고 있는 평지성으로, 성의 남쪽으로는 압록강이 서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서쪽에는 老嶺에서 발원한 通溝河가 국내성 옆을 바로 지나 압록강으로 흘러들면서 천연의 壕字를 이루고 있다. 동·북·서쪽으로는 龍山·禹山·七星山이 둘러쳐 있으며, 북쪽 2.5km 거리에는 丸都山城이 자리잡고 있다. 성의 평면은 方形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2,686m이다. 성벽의 바깥 북·동·남 3면에는 해자가 설치되었고, 서쪽은 통구가 천연 해자를 이루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석축 성벽은 고구려 시대의 축조물이지만, 그 아래쪽의 토축 성벽은 그 이전 玄菟郡시대에 축조된 高句麗縣治의 성터로 추정된다. 성문은 본래 남벽과 북벽에 1개씩, 동벽과 서벽에 2개씩

1) 『三國史記』 고구려본기에는 國內로의 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리적 이점을 기록하고 있다. “琉璃王二十一年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遂之 至國內尉那巖得之 抱於國內人家養之 返見王曰 臣遂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鱉之產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2) 『三國史記』 등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국내시기 도성으로는 國內城과 丸都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치 비정은 논란이 적지 않다. 본고는 국내성을 집안현성에, 환도성을 환도산성(산성자산성)에 비정하는 견해에 따른다.

3) 국내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池內宏, 1931, 『通溝』上, 17~23쪽.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集安縣文物志』, 61~65쪽

集安縣文物保管所, 1984, 『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 『文物』1984-1: 崔茂藏 譯, 1985, 『高句麗?渤海文化』

董峰, 1993, 『國內城中新發現的遺迹和遺物』,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李殿福(車勇杰·金仁經 譯), 1994, 『中國內的高句麗遺蹟』, 學研文化社, 19~24쪽

車勇杰, 1993, 『高句麗 前期의 都城』, 『國史館論叢』, 48, 8~11쪽.

모두 6개 있었다. 이들 성문을 연결하는 대로가 고구려시대에도 국내성의 내부 도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성 내부의 공간 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건물지에 대한 조사 발굴이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데, 현재 성안에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조사는 불가능하다. 다만 그 동안 건설공사 과정에서 고구려 시기의 건물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 중 중요한 곳은 60~70년대에 조사된 3곳의 건물지이다. 1963년에 목욕탕을 짓다가 발견된 건물터에서는 ‘太寧四年太歲口閏月六日己巳造吉保子宜孫’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灰色券雲紋瓦當이 출토되었다. 1971년에는 운동장 서쪽에서 동서 2열의 초석열과 건축 기단, 기와막새, 돌담장 기초 등을 발견하였으며, 1975년에는 集安縣 廳舍 공사장에서 위와 동일한 고대 담장의 기초와 붉은색 기와편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들 건축지를 연결하면 동서로 일직선을 이루며 동서 약 240m의 범위를 이룬다. 이 건축지는 성안의 중심부로서 그 규모와 위치로 보아 국내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로 보이는데,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건축지가 발견되었는데,⁴⁾ 대체로 성의 중앙부와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성 동문 바깥 제2백화점 북쪽에서도 건축지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성내 건축군과 성곽 동쪽 외곽의 건축군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배치가 성곽의 윤곽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통일된 구획의 형태는 분명하지 않다.⁵⁾

丸都山城은 국내성 북쪽 2.5km 거리에 있다. 해발 676m의 丸都山에 위치한 산성의 주위는 산봉우리들이 첩첩히 둘러싸고 있어 대단히 험준하며, 산성의 남쪽 바로 아래에는 압록강의 지류인 통구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산성의 자연적인 垓字 구실을 하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흘러간다. 산성의 서쪽은 七星山으로

4) 1985년에는 國內城 동북 모서리 즉 동벽에서 50m, 북벽에서 48m 떨어진 지점에서 건축지가 발견되었다. 1988년 4월에는 동벽에서 안쪽으로 40m 떨어진 團結大路 남측에서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을 출토되었으며, 동벽에서 150m, 남벽에서 175m 떨어진 곳에서 돌담장, 구들 板石, 토기, 와당, 쇠도끼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1987년 6월에는 남벽에서 9m, 서벽에서 190m 떨어진 老道德會터에서 토기, 와당, 벽돌 등 다수의 유물을 출토하였다. 1985년에는 인민회의당 동쪽에서 고대 碑石의 龜趺, 토기편, 기와편 등이 발견되었다. 또 集安市 印刷공장 위치에서는 토기편, 기와편, 금동불 등을 발견하였고, 영화관을 짓다가 초석을 발견한 바 있다. 이외에 集安縣 公安局 경내에는 동서로 나란히 배열된 두 줄의 초석이 있다.

5) 吉林省考古研究室, 集安博物館, 1984, 「集安高句麗遺跡新收穫」 「文物」, 1984 -17; 崔茂藏, 앞의 책, 157쪽.

험준한 봉우리들과 연결되어 산성의 자연 방어물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북으로 압록강가까지 뻗어 있다. 산성의 동쪽은 통구하를 따라 비교적 넓은 산골짜기가 펼쳐져 있다. 산성은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지형으로, 성벽은 환도산 정상부에서 산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넓은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包谷式 산성이다. 산능선의 자연 지세를 이용하여 축조하였기 때문에 산성의 평면은 불규칙한 형태이며, 성벽의 총길이는 6,951m이다. 성문은 모두 5개가 설치되었는데, 동쪽과 북쪽에 각각 2개씩이며, 남쪽에 1개가 있다. 가장 낮은 계곡 입구에 있는 남문이 산성의 정문으로 기능하였다.

성안에는 매우 넓은 경사면이 펼쳐져 있으며, 이곳에 3곳의 건물지가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안 동북쪽의 넓은 경사면에 자리잡은 궁전터로 추정되는 건물지이다. 그 규모는 남북 길이 92m, 동서 폭이 62m 정도로, 경사면으로 올라가면서 3층의 대지를 만들어 놓았다. 각층은 돌로 1m 높이로 단을 쌓았으며, 중간 단이 가장 넓고 큰 규모이다. 전체 넓이는 5,700㎡에 이르며, 현재도 열을 이룬 수십개의 초석과 다량의 기와가 발견되고 있다.⁶⁾ 그러나 환도산성은 산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도성의 정치적·행정적 중심지나 일반 거주지역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초기 都城의 공간 구성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국내성과 그 일대의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지역에서도 주민 거주구획과 도로 유적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당시의 도시 면모를 추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성곽 유적 이외에 지금까지 알려진 또다른 유적으로는 東臺子 유적, 果樹園子南 유적, 石柱 유적, 기상대유지, 國東大穴 유적 등이 있는데, 이들 유적은 고구려 당시의 국내도성을 구성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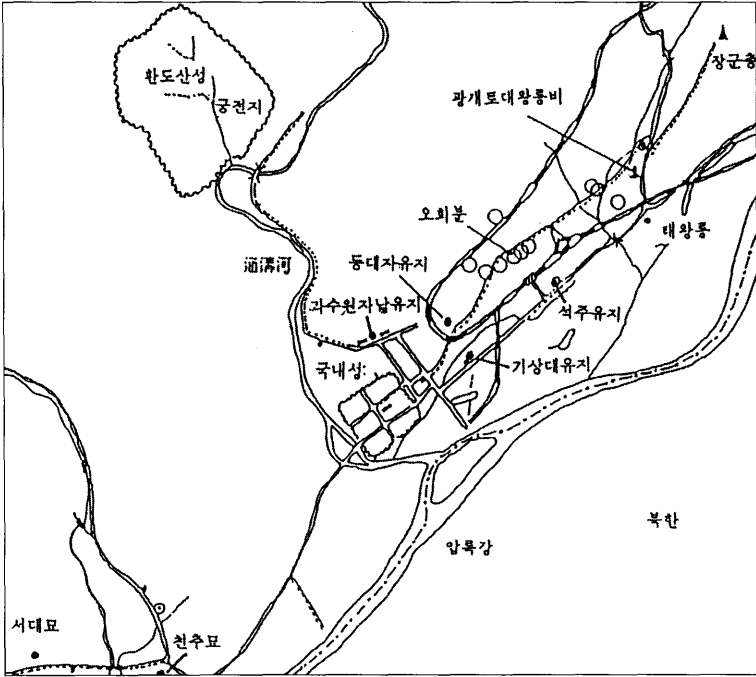
6) 丸都山城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가 참고된다.

池内宏, 앞의 「通溝」上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앞의 『集安縣文物志』, 65~69쪽.
 李殿福(車勇杰·金仁經 역), 앞의 책, 35~39쪽.
 李殿福, 1982, 「高句麗丸都山城」 『文物』1982-6, 82~85쪽.
 李殿福, 1982, 「集安高句麗山城子山城考略」 『求是學刊』1982-1,
 林直樹 外, 1994, 「高句麗都城と山城」 『靑丘學術論叢』5, 62~63쪽.

7) 이하의 유적지에 대한 서술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앞의 『集安縣文物志』, 43~48쪽.
 李殿福(車勇杰·金仁經 역), 앞의 책, 89~99쪽.

〈그림 1〉 국내지역 고구려 유적 분포도



요한 요소였을 것이다.⁷⁾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0.5km 떨어진 東臺子 유적은 동서 500m, 남북 150m, 지표의 높이 8~10m의 대지 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지의 남쪽으로는 탁 트인 층적 평원이 펼쳐져 있다. 1958년에 대지의 동쪽 일부를 발굴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회랑을 두른 건축물 4채가 발견되었다. 가옥은 正屋(I, II실로 구성됨) 두칸과 偏房(Ⅲ, IV실로 구성됨) 두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옥 두 칸의 중간에는 남북으로 길고 좁은 통로가 있고, 처마 돌출 부분의 지주에 있어 廊道가 있다. 이 廊道와 偏房 廊道는 서로 이어져 통한다. 정옥 1실의 위치는 동쪽이며 폭은 15m, 앞 뒤 폭은 11m이고, 그 중앙에는 잘 다듬지 않은 장방형 石座가 있다. 석좌의 위면 중앙에는 동서 방향으

로 4개의 방형 흠이 파여있으며, 석좌의 서측과 남측에도 네 개의 흠이 파여진 흔적이 남아있다. 이를 社主로 보는 견해도 있다.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건축 장식물로서 판와·통와·와당·塼·치미 잔편 등이다. 이 유적은 출토된 유물이나 건축물의 규모로 보아 왕실의 社稷과 宗廟 내지는 이와 관련된 제사유적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禹山の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果樹園子南 유적은 국내성 동북 모퉁이에서 북쪽으로 300m 거리에 있다. 유적은 넓은 산비탈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평지보다 7~10m 정도 높으며, 비탈의 경사도는 5° 정도이다. 유적의 범위는 동서 150m 남북 80m이고, 유적의 서쪽 부분에는 동서로 배열된 거대한 초석이 4개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는 지하에 다수의 초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발굴되지 않았지만, 유지에서 다수의 기와가 발견되었다. 특히 卷雲紋銘文瓦當 2점이 주목되는데, 그 중의 하나는 와당 가운데 '泰'의 명문이 있고, 주위 명문은 '歲口戌年造瓦所記'이다. 다른 하나는 잔편인데, 남아있는 명문은 중앙부에 '吉'이란 명문이, 와당 주위에는 '十谷民造'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그 외의 출토 유물로는 白玉耳盃, 도금 동축 20점, 도금그릇뚜껑 1점 등이 있다. 그 중 白玉耳盃은 漢王室의 유물이 고구려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와당과 유물로 보아 영성, 사직 등 제사 유적으로 추정되기도 하나,⁸⁾ 출토 유물이 최고급인 것으로 보아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어쩌면 국내성 내에서는 왕궁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성 북쪽에 별궁의 형태로 왕궁을 축조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건축지의 축조연대는 명문 와당을 근거로 고국원왕 8년(338)경으로 추정되기도 한다.⁹⁾

기상대 유적은 국내성 동쪽 1km여 거리의 우산 남쪽의 충적 평원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압록강과 0.5km 정도 떨어져 있다. 유적의 범위는 3만m²이고, 건축지로는 초석·돌담장·벽돌 담장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 일대에는 적석기와편·토기편·철

8) 李殿福, 위의 책, 93쪽.

9) 李殿福, 1984, 『集安卷雲紋銘文瓦當考辨』, 『社會科學戰線』, 1984-4, : 김정배 외 역음, 1991, 『중국어계의 고구려사 인식』, 70쪽.

10)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앞의 『集安縣文物志』, 46쪽

축 등이 흩어져있다. 출토 유물로 보아 고구려의 주거유적으로 추정된다.¹⁰⁾

石柱유적은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2.5km, 기차역에서 남쪽으로 0.5km 지점에 있다. 방형의 石柱 2기가 동서로 나란히 있으며, 이 일대에서 석축 기초와 석축 담장이 조사되었다. 이 건축지는 5회분의 享殿 건축물로 추정되기도 한다. 태왕릉이나 장군총 역시 대규모의 묘역을 갖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國東大穴 유적은 국내성 동쪽 上解放村의 永洞子溝里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곡 안쪽의 산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동굴이다.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록인 “其國東有大穴，名隧穴，十月國中大會，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置木隧于神坐”에 보이는 隧穴로 추정되고 있다.

2) 국내기 都城의 구성

이상 집안 일대에서 조사되어 있는 고구려시대의 유적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아직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주민의 거주 유적 등이 조사되지 않아 도성의 공간적 구성을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먼저 문헌자료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도성의 행정적 구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고국천왕대부터 등장하는 방위명 5부의 존재이다.¹¹⁾ 이 방위명부는 畿內지역에 설정된 것으로, 王都 일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那部和 구분된다.¹²⁾ 그러면 국내지역에서 방위명 5부의 위치는 어디에 비정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국내성을 포함하여 畿內的 지역 구분과 지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단서 역시 매우 불충분하지만, 葬地名으로 정해진 고구려왕의 王名이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 장지명에서 비롯한 왕명으로는 故國川王(故國川原)·山上王(山上陵)·東川王(柴原=東川原)·中川王(中川原)·西川王(西川原)·峰上

11)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故國川王 13年 夏四月 “(左可慮等) 聚衆攻王都 王徵畿內兵馬平之 遂下令曰 近者官以寵授 位非德進 毒流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令汝四部 各舉賢良在下者 於是 四部共舉東部晏留 王徵之 委以國政”

12) 林起煥, 1995,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49~55쪽.

王(峰山原)·美川王(美川原)·故國原王(國岡上王; 故國原)·小獸林王(小獸林)·故國壤王(故國壤) 등이다.¹³⁾ 또한 장지를 알 수 있는 왕으로 新大王(故國谷)·廣開土王(國岡上)이 있다. 이들의 왕릉이 국내지역에 있음은 분명하다.¹⁴⁾

그런데 현재 집안 일대에 남아있는 왕릉으로 추정되는 거대 적석총을 보면, 국내지역 서쪽 끝에는 千秋墓와 西大墓가 자리잡고 있고, 동쪽 끝에는 臨江塚·太王陵·將軍塚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다섯 고분은 그 규모나 축조 방식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왕릉으로 추정하여도 무리는 없겠다. 즉 이들 5개의 고분은 대략 미천왕·고국원왕·소수림왕·고국양왕·광개토왕 등 5왕의 왕릉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5왕 중 '國'이란 장지명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국원왕(國岡上王)·고국양왕·광개토왕(國岡上)의 3왕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적어도 고국원왕과 광개토왕은 國岡上이라는 동일 장지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광개토왕릉비의 위치로 보아 인근의 장군총이나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의 후보로 본다면, 국내지역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臨江塚·太王陵·將軍塚을 고국원왕·고국양왕·광개토왕의 왕릉에 비정할 수 있을 것이고, 남은 千秋墓와 西大墓를 미천왕·소수림왕의 왕릉에 비정할 수 있겠다.

여기서 유의되는 점은 국내시대 후기 5왕의 고분으로 추정되는 거대 적석총이 국내지역의 동서 양 끝단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 사이 지역에는 더 이상 거대한 묘역을 갖는 왕릉을 축조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즉 국내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 평원지대에는 이미 다수의 고분군과 주민의 거주 공간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후기 5왕과 산기슭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상왕·봉상왕을 제외하면, 대략 동쪽의 장군총·태왕릉·임강총[國原, 國岡上]으로부터 서쪽의 천추총·서대

13) 閔中王과 慕本王 역시 葬地名에 의거한 왕명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 두왕은 국내시기의 왕이 아니라, 이 이전 졸본이 왕도였을 때의 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왕의 장지는 국내 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미룬다.

14) 대표적으로 서천왕묘 역시 국내 지역에 있었다. 『至故國原見西川王墓』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烽上王 5년조

1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초기 기사에 나타나는 '國'은 주로 수도 國內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그러나 필자는 장지명에서 의거한 왕명에 나타나는 '國'은 國內 지역의 특정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다룬다.

총[小獸林, 美川原]까지의 중간 지대에 동천왕·중천왕·서천왕의 왕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지명에서 유추하면, 국내성을 중심으로 동서로 펼쳐진 평원지대를 東川原·中川原·西川原으로 지역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 문헌자료에 전해지지 않는 다른 지역명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東·中·西로 구분되는 일련의 지역명은 일정한 기준(방위)으로 국내지역이 지역 구분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中川이란 지명은 지금의 국내성 서쪽으로 흘러가는 통구하를 가르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국내지역이 압록강을 따라 東西로 길게 전개되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면, 지형상 北川原·南川原이란 지역 구분은 상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일정 지역을 방위명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鄒牟王의 장지인 忽本東岡이나, 琉璃王의 장지인 豆谷東原이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물론 國原(國岡上)·東川原·中川原·西川原·美川原 등의 지역 구분이 행정구역명이 아닌 단순히 지리적 조건에 따른 지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지역의 전반적인 지리적 환경을 염두에 둔다면, 당연히 방위의 기준이 되었을 국내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방위로 구분되는 방위명 部의 위치를 설정하기가 그리 간단치 않다. 일단 현존하는 고분의 분포 지역을 제외한 평원 지역을 주거지역의 대상으로 삼아 추정한다면, 국내성을 中部로 놓고 보면, 東部和 北部에 해당되는 구역은 주민 거주지역으로 설정하기에 충분한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성 남쪽과 서쪽으로는 통구하 서쪽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西部와 南部의 둘 중 하나 정도만이 구역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그림 1 참조>

물론 행정구역이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행정구역 설정 자체를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국내성을 기준으로 국내 지역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방위명 部를 설정할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葬地名에서 추정한 東川原·中川原·西川原·美川原 등의 지역명과의 구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川原 지명이 방위명 部 안에 포괄될 수도 있고, 아니면 5부의 외곽에 설정된 지명일 수도 있다. 현재 주거 유적이 확인되지 않을 상태에서

는 어느 것도 가능한 추정이다.

한편 5부가 국내성 안에 설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필자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싶다. 사료상으로 방위명 部가 처음 등장하는 고국천왕대에 왕궁 및 왕실 구성원, 그리고 관청 등이 국내성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 작다고 볼 수 없는 국내성 내부 공간이기 때문에, 의당 귀족세력들의 거주지도 국내성 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방위부가 등장하는 초기에는 5부가 국내성 내부의 지역 구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다.

고구려 당시 국내성 내부의 구획은 현존하는 도로망과 마찬가지로 크게 東西 방향 2개의 도로와 南北 방향 1개의 도로로 구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내성의 내부 공간은 6개 구역으로 나뉜다. 그런데 왕궁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주로 도성 안 중앙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에 궁궐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왕궁의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남북 도로가 중앙부 부근에서 일직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이 일대가 뚜렷이 2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었다기 보다는, 본래 하나의 구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략 동서 2개의 도로로 구획되는 중앙부 일대를 왕궁과 관청 등이 위치하는 中部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외곽의 나머지 4개 구획을 방위에 따라 각각 동서남북의 4部로 비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5부의 구역 구분은 왕궁을 중심으로 보면 방위상으로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런데 초기의 방위명 5부를 국내성 내부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평양 천도 이전까지 지속되었으리라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집권체제가 정비되면서 지방 那部의 지배세력이 王都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국내 지역의 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¹⁶⁾ 관부의 분화에 따라 도성의 규모가 확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귀족세력들이 도성 안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증가 및 왕궁과 관청의 확대 과정에서 국내성의 외곽에도 거주 지역이 마련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국내성 동쪽의 거주유적지가 이를 방증한다.

그러면 이러한 국내성 외곽 지역에 대한 행정적 구분은 어떠하였을까? 5部를 확장

16) 이러한 방위에 따른 지역구분 방식이 五行사상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는 좀 더 검토할 문제이다.

17) 林起煥, 앞의 논문, 55~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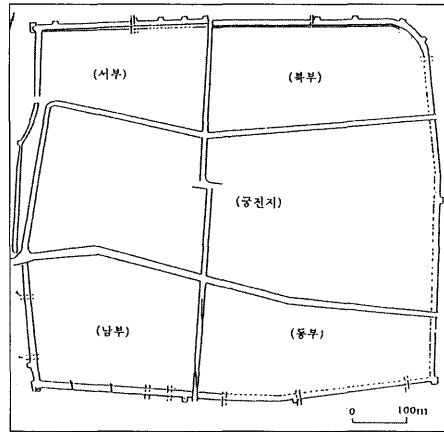
하여 편제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별도의 편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자료에는 5부 이외에 별도의 행정구역명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단 5부의 행정구역이 국내성 외곽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¹⁸⁾

한편 왕궁의 확대도 유의된다. 봉상왕대에는 왕궁을 增營하거나 수리한 기사가 보이고, 광개토왕대에도 왕궁을 增修한 기사가 보인다.¹⁹⁾ 그런데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도시가 형성되어 왔던 국내성 내부에서 새로이 왕궁의 공간적 확대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환도산성의 궁궐도 별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지만, 국내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나 산성이라는 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일상의 왕궁으로 기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내성 부근에 또다른 왕궁지가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그 유력한 후보로는 앞에서 살펴 본 果樹園子南 유적을 들 수 있다. 이 유적을 왕궁지로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출토된 와당 등 유물이 최고급인 것으로 보아 왕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유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왕궁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이 유적의 조성 시기는 출토 명문 와당을 근거로 고국원왕 대로 추정하고 있는데,²⁰⁾ 대략 4세기 전반으로 추정하는 데에 그리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 유적과 국내성 북벽과의 사이에는 확장된 거주구역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 왕궁지 유적이 국내성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조성된 배경은 그 중간 지대에 이미

〈그림 2〉 국내성 평면도와 5부



18) 동천왕대에 나타나는 下部의 존재가 東·西·南·北部와 구분되는 국내성 외곽의 행정적 편제일 가능성도 고려된다.

19)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峰上王 7年 冬10月 “王增營宮室”
 峰上王 8年 8月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
 廣開土王 16年 春2月 “增修宮闕”

20) 李殿福, 앞의 책, 93쪽

주민 거주지역이 조성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제사 관련 유적지로는 앞서의 東臺子 유적과 國東大穴이 주목된다. 동대자 유적의 조성시기를 고국양왕 9년(392) 3월의 “命有司 立國社修宗廟”와 연관하여 보기도 한다.²¹⁾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廟社가 있었기 때문에,²²⁾ 동대자 유적의 조성 시기를 반드시 고국양왕대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고국원왕 대에 前燕의 침입으로 수도 국내성 일대가 파괴된 점을 염두에 두면,²³⁾ 東臺子 유적의 조성을 4세기 전 반경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다. 이 동대자 유적과 국내성이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그 중간 지대에 이미 거주지역이 조성되었던 결과로 짐작된다. 한편 東臺子 유적이나 國東大穴 유적이 국내성 동쪽에 위치한 것은 국내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쪽을 상위로 인식한 고구려인의 관념에서 볼 때,²⁴⁾ 이들 제사 유적이나 종교적 성소가 동쪽에 배치된 배경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 확장된 도시 구역의 범위를 살펴보자.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성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왕궁지로 추정된 果樹園子南 유적의 남쪽 일대가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동쪽으로는 東臺子 유적이나 기상대 유적의 서쪽 일대까지가 도시 구역의 공간적 범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대자 유적 동쪽으로는 고분군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서쪽과 남쪽으로는 칠성산고분군의 남단에서 시작되는 압록강 일대의 평지가 유력하다고 보겠다. 대략 이런 지역이 주민이 밀집된 시가지 구역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 현재 고분군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평원지대에는 일반 주민들의 촌락과 농경지가 자리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림 1 참조>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대략 살펴본 국내지역 都城의 공간적 구조가 갖는 특성을 개관해 보자. 먼저 전기의 도성제에서 중요한 성곽 유적은 왕궁성이며 거주성으로서 기능한 平地城인 國內城, 방어성의 역할을 하던 山城인 丸都山城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조성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 지적되어온 바이지만, 산성과 평지성의 조

21) 李殿福, 위의 책, 91쪽.

22)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東川王 21年 春2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23)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故國原王 12年 “(慕容)皝從之 發美川王墓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毀丸都城而還”

24) 『翰苑』 所引 高麗記 “其國從事 以東爲首 故東部居上”

25) 고구려에서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은 고구려가 영역 확대 과정에서 기존의 한군현의 평지토성을 이용하는 한편 토성

합이 都城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점 역시 유의된다.²⁵⁾ 그러나 후술하듯이 평양 천도 이후에도 산성과 평지성이 조합된 도성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 점이 고구려 도성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전개되었음은 주목된다.

고구려가 평지성의 주위에 방어시설로 산성을 구축한 것은 산성을 중심으로하는 고구려 독자의 방어전술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어 전술에서 보면 도시 외곽을 둘러싸는 외곽 나성의 조성은 불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도성의 방어체계에 있어서 국내지역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교통로 선상에 다수의 산성과 차단성을 위성으로 축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내기 도성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²⁶⁾

마지막으로 도성의 주거구역의 확대 과정에서 왕궁을 중심으로하는 공간구조의 변화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국내성 중심에 왕궁을 조성하고 그 주위를 5부로 구획하는 공간 구조였다. 그런데 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왕궁과 도시구역이 확장되면서 일정한 변화상이 엿보인다. 즉 앞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果樹園子南 유적을 왕궁터로 볼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도성의 공간 구조는 ‘坐北朝南’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그 북쪽에 환도산성이란 방어성이 구축된 형태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는 도성이 ‘江南山北’의 조건에서 조성되었음도 주목된다. 이러한 국내기 도성구조의 특성은 평양 천도 이후에도 평양기 도성의 공간 구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음이 유의된다.

주위에 방어용 산성을 축조한 결과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환인의 下古城子城과 五女山城, 虫刺哈城과 霸王朝山城, 제 2玄玄郡治로 지정되는 永陵鎮의 漢代土城과 舊老城, 제 3玄玄郡治로 지정되는 무순의 勞動公園古城과 高爾山城, 西安平縣治로 지정되는 丹東의 靺下尖古城과 虎山山城 등이 있다.

26) 그 분포 상황을 보면 먼저 환인에서 溥江으로 따라 집안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城墻砬子山城·瓦房溝山城 등의 산성과 北溝關隘가 있다. 다음 轉水湖山城·黑溝山城에서 富爾江 유역을 거쳐 新開河를 따라 남하하는 경로에는 建設山城·霸王朝山城·望波嶺關隘가 있다. 自安山城에서 통화를 거쳐 清河·위사하를 따라오는 남하하는 경로에는 大川哨所·關馬壙山城이 있으며, 통화에서 羅圈溝河·通溝河를 따라 남하하는 경로에는 二道溝門關隘·石湖關隘가 있다. 그리고 위 두 경로를 따라 국내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夾河溝哨所와 板岔嶺哨所가 있다. 마지막으로 압록강을 따라 올라오는 경로를 중간에서 통제하는 곳으로는 七個頂子關隘, 老邊壙關隘이 자리잡고 있다. 林起煥, 1998, 「高句麗前期山城研究」, 『國史館論叢』 82, 61~66쪽 참조.

3. 平壤期の 都城制

1) 평양 전기의 도성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장수왕 15년(427년)에 평양으로 천도하였다고 한다.²⁷⁾ 그러나 그 이전인 고국원왕대부터 평양지역 경영이 본격화되고, 광개토왕대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남방경영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²⁸⁾

광개토왕 2년에 平壤에 9개의 불교 사찰을 한꺼번에 창건한 사실은, 이미 평양지역에 국내 도성으로부터 귀족세력의 이주가 일정 정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광개토왕이 이 지역의 원래 주민들을 위하여 9개나 되는 사찰을 일시에 창건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기록상 國內 지역에도 9개나 되는 규모의 사찰이 일시에 창건된 예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平壤 9寺 창건의 배경에는 상당수 國內 지역 주민들의 移住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설사 그 당시에 이주민이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이후 지속적인 이주 내지는 평양으로의 遷都를 전제로 9寺의 창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개토왕 18년에 이루어진 평양성 民戶의 國東 6성으로의 이주는 역시 곧 이 지역 토착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와 함께 평양지역 주민 구성의 전반적인 개편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광개토왕때의 평양 경영은 「廣開土王碑」에 나타난 2차례의 평양 巡守 기사에서 보듯이 평양을 南進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양지역에 대한 일련의 정책은 사실상 평양천도를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長壽王 15년의 平壤遷都는 이와 같은 광개토왕대의 평양 경영을 전제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사실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백제의 경우처럼 외침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상태에서 일시에 천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려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상당한 시일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이루

27)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長壽王 15年 “移都平壤”

28)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廣開土王 2年(393) “創九寺於平壤”

廣開土王 18年(409) 7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戶”

「廣開土王碑」“(永樂)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 王巡下平壤”

“(永樂)十四年甲辰 而倭不軌侵入帶方界(중략)王躬率往討 從平壤”

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지역의 都城制 역시 충분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평양기의 都城制에 대해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천도 배경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평양의 도성제는 이전 국내기 도성제의 계승이란 면과 보다 확대된 국가체제의 정비 과정에서 새로운 도성제의 정비라는 양측면이 관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먼저 도성제의 정비와 관련해서 천도의 배경을 살펴보자. 평양천도의 배경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적인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본 글에서는 도성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점만 간략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대동강 유역과 황해도 지역의 비옥하고 너른 평야지대를 끼고 있다는 평양의 경제적 기반을 일차적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때 도성제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방향에서 조성되었을 측면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륙 깊숙이 위치한 국내성과는 달리 평양 지역은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평양은 새로이 고구려의 중요 기반으로 떠오른 한반도 서북 지역의 중심지에 해당될 뿐 아니라, 요동이나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진출할 때에도 거점과 배후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 지역이 낙랑·대방군 이래 한반도 남부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닷길로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즉 평양의 지리적 조건은 개방성과 국제성을 갖고 있다고 보겠다. 물론 이런 개방성은 반대로 군사 방어면에서는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성 방어체제의 보완이 계획되었을 것이다.

평양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동북쪽은 청운산과 대성산이 이어져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낭림산맥에서 발원한 대동강이 이 평원지대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흐르고 그 지류인 보통강이 남류하여 대동강과 합류하고 있다. 주변 지역이 대부분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대동강의 남쪽에는 넓은 충적 평야가 발달해 있다.

장수왕대에 천도한 평양의 도성은 평지성인 청암리토성과 산성인 대성산성, 그리고 평지궁성인 안학궁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 도성의 공간 구

조를 짐작케하는 중요 유적으로는 위의 세 성곽 이외에, 고방산성·청호리토성 등 성터와 금강사지·청호리사지·상오리사지 등 절터, 그 외 대동강의 나무다리터, 고산동 우물터와 여러 곳에서 조사된 도로유적 등을 들 수 있다.²⁹⁾ <그림 3 참조>

대성산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위치하는데, 안학궁성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성산은 해발 274m의 乙支峰을 최고봉으로 하는 6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산성은 이 6봉을 연결하여 서남쪽으로 큰 계곡을 끼고 있는 포곡식 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7,076m, 성내의 면적은 2.723km²이다. 계곡부에는 2중·3중의 성벽을 축조하였는데, 그 길이는 2,208m에 이른다. 성벽의 축조 방식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형에 따라 그 축조 방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성문은 20개소가 발견되었는데, 계곡 입구에 있는 南門이 정문의 역할을 하였다. 성안에는 10개의 연못이 있는데, 그 중 6개가 동편의 저지대에 있으며, 방형 내지 장방형의 석축으로 조성하였다. 성안에는 식량 창고와 무기고·병영터·각루 등 18개의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편은 다양한데, 이들 건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축 또는 증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성산성에서 출토된 와당은 그 양식이나 제작수법이 국내 지역의 태왕릉이나 장군총에서 출토된 와당과 거의 같은 시기로 추정되고 있어, 늦어도 5세기 초에는 대성산성을 완전히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³⁰⁾ 이러한 대성산성은 산성으로서 방어성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국내 도성의 丸都山城과 동일하며, 행궁지가 발견되는 점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 그리고 대성산성의 주위에는 1천여 기의 고구려 고분이 산재하고 있는데, 이점 역시 국내의 환도산성과 유사한 환경이다.

안학궁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위치하는 평지성으로, 성곽의 둘레는 2,488m이며 넓이는 38만m²에 달한다. 성의 형태는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방형이

29) 이하 평양 일대의 유적에 관한 서술은 다음을 참고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민속학강좌,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 1973

한인호, 『안학궁부근의 고구려 수도 도시면모에 대한 복원』, 『조선고고연구』, 19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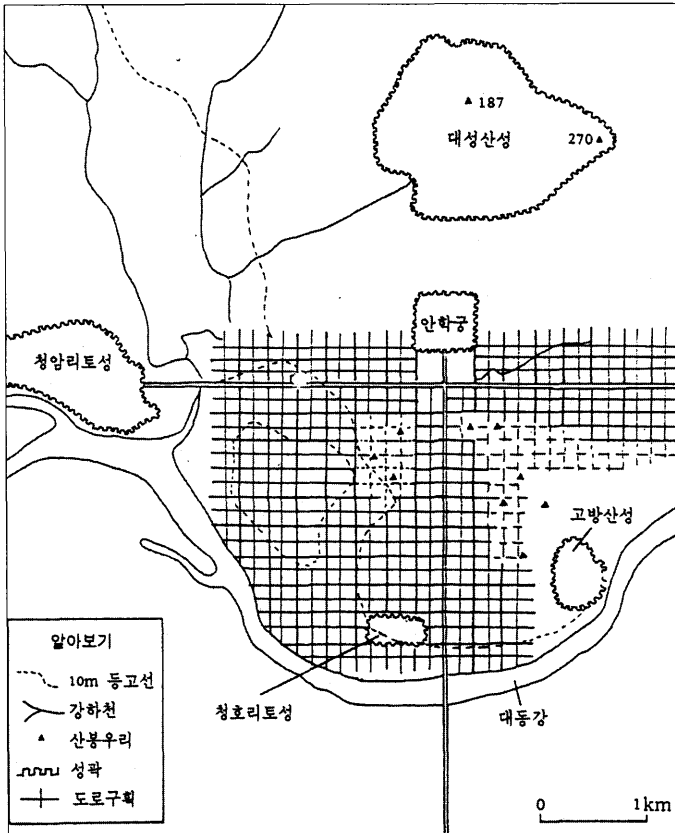
남일룡·김경찬, 『청암동토성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998-2

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317~327쪽.

閔德植, 1989, 『高句麗의 中期都城』, 『韓國史論』(국사편찬위원회), 75~159쪽.

30) 앞의 『대성산의 고구려유적』, 99쪽

(그림 3) 안학궁 부근의 고구려 유적과 리방 복원도



전거 : 최무장, 「고구려고고학」

다. 안학궁성이 방형의 형태를 취한 것은 국내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돌과 흙을 섞어서 쌓았으며, 성의 동·서쪽 성벽 밖으로는 해자를 둘러쌌다. 성문은 6개소로서 남쪽에 3문이 배치되어 있고, 동·서·북에 각각 1개의 성문이 있다. 궁성안의 건물지는 52채로, 총 건평 31,458㎡에 달한다. 특히 남쪽 3개의 성문을 통하는 남북 중심축에 따라 3개의 큰 궁전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중심 건물의 동서 축으로 다수

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남북 방향을 중심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 성곽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구성된 건물의 배치 형태에서 오행사상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³¹⁾ 중심 건물의 배치에서 ‘前朝後寢’의 법식을 따른 점도 주목할 만하다.³²⁾

청암리토성은 안학궁성과 장안성의 중간쯤에 위치하며 대동강을 남쪽으로 끼고 있는 낮은 구릉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에는 해발 62m의 주암산이 있고, 서쪽으로는 낮은 구릉지대가 이어진다. 동쪽은 습掌江이 흘러 천연 해자를 이루고, 남쪽은 대동강에 면한 절벽이다. 성의 평면은 반달모양이며 성벽의 총 둘레는 5km이다. 성벽은 토축을 기본으로 일부 석축을 하였다. 동·서·북에 성문이 있는데, 서문은 장안성의 북문과 이어지고 있으며, 성의 동문에서 대성산성 남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1920년대까지 남아있었는데, 일제시대에 없어졌다. 여기서 대성산성까지의 거리는 약 3.5km이다. 성의 중앙에는 498년(문자왕 7)에 세운 金剛寺로 추정되는 절터가 남아있으며, 그 동쪽으로는 남북으로 긴 낮은 대지 위에 다수의 초석이 남아있는데, 이곳에 큰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청암리토성에서는 대성산성에서 출토되는 고식의 수막새들이 출토되어 그 축조시기가 상대적으로 안학궁성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장수왕대에 평양으로 천도할 때 왕궁성의 용도로 청암리토성을 축조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³³⁾

앞에서 살펴본 유적 이외에는 아직까지 당시 주민들의 거주구역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당대 도성의 공간적 구조를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다만 일부 도시 계획의 흔적이 청호동·림흥동 구역과 안학궁성의 서쪽 지대에서 조사되었으며,³⁴⁾ 특히 안학궁 남문터에서 대동강변의 나무다리터³⁵⁾ 사이에 걸쳐 비교적 규모있게 드러났다.

31) 李殷昌, 「高句麗園林史研究」 『韓國傳統文化研究』, 1986, 172~180쪽. 이은창은 청암사지, 정릉사지, 상오리사지에도 오행사상이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32) 張慶浩, 1984, 「통일신라시대의 궁전건축」 『고고미술』 162·163, 53쪽

33) 關野貞, 1941, 「高句麗の平壤城及び長安城に就いて」 『朝鮮の建築と藝術』, 345~358쪽.
田村晃一, 1988, 「高句麗の城郭について」 『百濟研究』 19, 155~156쪽.

34) 韓인호·리호, 1991, 「안학궁터부근의 고구려 리방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1-4,

35) 청호동에서 발굴된 고구려 나무다리터는 다리의 너비는 9m이고, 길이는 375m이다.

또 청호동에서는 일부 건축지와 도로 흔적이 조사되었다. 청호동의 도로 구획은 대동강 나무다리터에서 북쪽으로 500m 지점에 있는데, 가로 세로 구획이 규칙적이며, 도로 구획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뉘는데, 각 구획은 정방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작은 것은 동서·남북 길이 각각 140m이고, 큰 것은 동서·남북 길이 각각 280m이다. 큰 도로구획에는 반드시 작은 도로가 가로 세로로 구획되어 전체적으로 ‘田’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도로구획은 림흥동과 안학궁 서쪽 대지에서도 발견되었다. 림흥동의 도로구획의 형태나 크기는 청호동의 도로구획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학궁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 구획의 면모를 대강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학궁성 남문터와 청호동 대동강변의 나무다리터를 연결하는 선은 남북 방향의 큰 도로와 일치한다. 이는 당시 도성의 남북 대로로서 주작대로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청암리토성의 동문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직선 도로를 그리면 남북 대로와 직각으로 만나게 된다. 당시 주민 거주 구역은 서쪽으로 청암리토성에서 동쪽으로 고방산에 이르는 지역, 남쪽으로는 동서 도로의 남쪽에서 청호리토성과 대동강변에 이르는 대지로서, 田자형 주민거주구획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림 3 참조>

그리고 里坊 구획의 규모는 도로 구획의 크기로 볼 때 작은 것이 140m, 큰 것이 280m로 추정된다. 4개의 작은 구획이 합쳐져 형성된 큰 구획은 다시 4개가 합쳐져 한 개의 坊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면 안학궁 일대의 坊은 대략 36개 정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양 전기 도성제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곽의 축조 시기와 里坊制로 구성된 주거지역이 형성된 시기이다. 대성산성과 청암리토성이 장수왕대에 이미 축성되었음은 확실한데, 문제는 안학궁의 축조 시기이다. 안학궁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북한학계에서는 대성산성의 축조와 동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학궁성에서는 대성산성 내에서 출토되는 고식의 수막새는 출토되지 않았으므로, 대성산성의 축조 시기보다 늦은 시기인 고구려 후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³⁶⁾ 안학궁의 축조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평양 전기 도성제

36) 田中俊明, 1995, 『高句麗의 歷史와 遺蹟』, 中央公論社, 216~219쪽

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학궁과 그 일대의 里坊 구역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里坊制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³⁷⁾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학궁성을 중심으로하는 里坊制의 모습을 염두에 두면, 천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안학궁성이 축조되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할 뚜렷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문헌 기록에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삼국사기』를 보면, 安臧王 11년(529)에 黃城 동쪽에서 왕이 전렵하였다는 기록이 있고,³⁸⁾ 平原王 13년(571)에는 宮室을 重修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³⁹⁾ 여기서 안장왕 때 黃城의 후보로는 청암리토성과 안학궁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黃城 기록으로는 故國原王 13년에 移居한 平壤東黃城이 있다.⁴⁰⁾ 이 고국원왕대의 黃城은⁴¹⁾ 그 위치를 국내 지역으로 보기도 하고, 지금의 평양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 아직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고국원왕 4년의 平壤城 增築 기사나 고국원왕대의 평양 경영과 관련시켜 보면,⁴²⁾ 이들 平壤城과 黃城이 지금의 평양 일대에 위치할 개연성이 크다.⁴³⁾ 그렇다면 고국원왕대에 축성한 평양성은 청암리토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으며, 이와 또다른 평양 東쪽의 黃城은 안학궁일대로 비정할 수 있다. 문제는 청암리토성과 안학궁 일대에 과연 고국원왕대에 궁성이 마련되었느냐인데, 청암리토성은 그 초축 시기를 올려볼 가능성이 있으나, 안학궁성 일대는 현재의 자료로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는 현 안학궁 유적의 하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평원왕 13년에 중수한 宮室은 안학궁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⁴⁴⁾ 이때는 이미 천도를 전제로 하는 장안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뒤이기 때문에, 이 때의 궁실은

37) 田中俊明, 위의 책, 217~218쪽

38)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安臧王 11年 春3月 “王畋於黃城之東”

39)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平原王 13年 8月 “重修宮室 蝗旱 罷役”

40)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故國原王 13年 秋7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41) ‘平壤東黃城’은 평양의 ‘東黃城’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평양 동쪽의 ‘黃城’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42)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故國原王 4年 秋8月 “增築平壤城”

43) 평양지역의 移去와 관련된 기사로는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동천왕 21年 春2月조의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廢” 기사가 있다. 여기의 平壤城은 國內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일한 平壤城이 다른 지역의 城名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본기의 사료 조건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룬다.

천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함을 전제로 중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장안성으로 천도한 이후에 왕궁성으로 활용된 것은 안학궁성이 확실하다. 따라서 평원왕대에 重修한 궁실은 안학궁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장수왕의 천도 때에는 청암리토성을 궁성으로 하고 안학궁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천도 이후 도성의 정비 과정에서 새로이 안학궁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시기는 늦어도 문자왕대가 아닐까 추정된다.

이와 같이 안학궁성의 축조 시기를 올려볼 수 있다면, 안학궁성과 구조적으로 밀접히 연관되는 里坊制로 구성된 도시 구역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다. 즉 안학궁성과 그 남쪽의 도시 구역이 평양 천도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정비되었음을 인정한다면, 평양 전기 도성의 전체적인 구성은 ‘坐北朝南’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495년 이후에 조성된 北魏의 낙양성이 같은 형식이다. 안학궁성과 그 일대 시가지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북위 낙양성의 영향 여부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개연성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內期都城의 경우에도 그 변천 과정에서 ‘坐北朝南’의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고구려 독자의 전통이라는 면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坐北朝南 형식의 도성 계획은 평양 후기 도성인 장안성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평양 전기의 도성 구조가 국내기 도성 구조를 계승하는 면모는 몇가지 측면에서 확인된다. 즉 산성인 대성산성과 평지성인 안학궁성(혹은 청암리토성)의 조합이라는 점도 국내기의 도성 구조와 동일한 양상이며, 도시의 외곽에 羅城이 축조되지 않아 도성 주위에 위성 방어체계를 구축한 점도 마찬가지이다. 평양 전기 도성의 경우는 동남쪽의 고방산성과 남쪽 강안의 청호리 토성, 서쪽의 청암리 토성이 위성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아울러 ‘江南山北’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것도 백제나 신라를 의식한 방어상의 목적도 고려되지만, 국내기 도성의 지리적 조건에 익숙한 결과가 아닐까 짐작된다. <그림 3 참조>

44) 閔德植, 앞의 「高句麗의 中期都城」, 136쪽

2) 평양 후기의 도성제

고구려는 586년(평원왕 28)에 장안성으로 천도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장안성의 축성은 552년(양원왕 8)에 시작되었으며, 오랜 시일에 걸쳐 축성이 진행되었다.⁴⁵⁾ 구체적인 성곽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여기서 별도로 정리하지는 않겠다.⁴⁶⁾ 다만 궁궐을 방어하는 내성이 먼저 축조되고, 그 후에 시가지를 두르는 외곽 나성이 축조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성곽의 형태상 초축시부터 외성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짐작된다.⁴⁷⁾

먼저 장안성의 지리적 형세를 보면, 성곽의 남쪽에는 대동강이 S형으로 흐르고, 서쪽으로는 보통강이 흘러 자연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고구려시대 평양성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의 평양성의 구조에서 단서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당시 평양성은 외성·중성·내성·북성의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⁴⁸⁾ 성벽의 전체 길이는 23km이고, 성안의 총면적은 약 12km²이다. 그 중 내성은 130만m², 중성은 300만m², 외성은 730만m², 북성은 25만m²이다.

이러한 평양성의 구조 중에서 고구려시대에 축조된 성벽이 어떤 것이냐가 문제인데, 고구려시대의 성벽 축조 사실을 담은 刻字城石은 외성과 내성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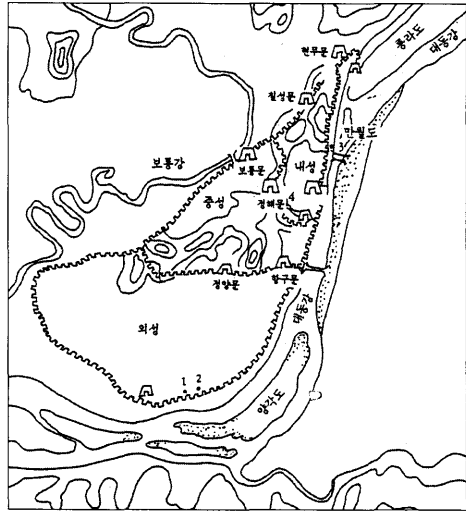
-
- 45) 『平壤續志』 권1 城池조에 의하면, 1714년(숙종 40)에 북성을 복구하면서 석각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本城四十二年畢役”이라고 한다.
- 46) 장안성의 축조시기는 성벽에서 발견된 금석문에 대한 이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정리는 閔德植, 앞의 「고구려의 후기도성」, 206~211쪽이 참고된다. 장안성의 성벽 금석문은 다음과 같다.
 (제1석) 己丑(酉)年五月廿八日始役西向十一里小兄相夫若牟利造作
 (제2석) 己酉年[三]月廿一日自此下向東十二里物苟小兄排湏百頭作節矣
 (제3석) 己丑(酉)年三月廿一日自此下向[下]二里內[中]百頭上位使余文作節矣
 (제4석) 丙戌十二月中漢城下後『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
 (제5석) 卦婁盖切小兄加群自此東廻上[口]里四尺治
- 47) 장안성의 축조 배경에 대해서, 손영종은 ①수도의 건축물과 주민의 보호, ②국력의 과시 ③ 수도 방위의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손영종, 1997,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70쪽)
- 48) 장안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최희림, 1978, 『고구려 평양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 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정찬영, 『평양성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6-2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년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최희림, 『고구려 평양성(장안성)의 성벽 축조형식과 시설물의 배치상태』, 『고고민속』, 1967-3
 閔德植, 『高句麗의 後期都城』, 『韓國史論』(국편위), 1989, 175쪽)

이에 중성과 외성을 구분하는 성벽을 고려시대의 축조물로 보고 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도 있으나,⁴⁹⁾ 현재까지 북한의 연구는 고구려시기에 이미 4구역의 성곽이 모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또한 각 성의 성격은 내성은 궁성, 중성은 행정기관과 최고위 귀족의 저택이 있는 성, 외성은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성, 북성은 궁성의 보호성으로 추정된다.⁵¹⁾ 각 성의 기능으로 보건데, 외성은 일종의 나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내성에서의 궁전지는 만수대 일대로 추정되며, 또한 북성은 궁성의 후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크다.⁵²⁾ <그림 4 참조>

장안성의 도시 유적은 외성에서 확인되었다.⁵³⁾ 1954년 김책공업종합대학 건설장에서 발견된 구획은 동서 120m, 남북 84m의 직사각형의 구획이었다. 그리고 평천구역 일대에서 확인된 도로는 동서, 남북 각각 84m의 정사각형의 구획이었다. 즉 외성의 里坊은 성곽의 제한된 테두리와 지형 조건으로 인하여, 2가지 유형의 구획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축되었던 것이다. 즉 장안성 외성의 도시 里坊은 함구문-정문 구간에서는 120m×84m의 장방형으로, 함구문 동쪽구간과 정양문 서쪽구간은 84m

<그림 4> 장안성 평면도



전거 : 최무장, 『고구려고고학』

49)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3, 24쪽

50) 최희림, 『평양성을 쌓은 연대와 규모』 『고고민속』, 1967-2, 27~35쪽.

51) 손영준은 북성에 내성의 방어 기능은 물론 始祖 사당등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손영준, 앞의 『고구려사 2』, 71쪽) 한편 민덕식은 북성이 왕궁의 후원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閔德植, 앞의 『高句麗의 後期都城』, 175쪽)

52) 내성의 만수대 부근에서 고구려시대의 건물지가 발견되었고, 보통강 부근에서 성문지가 발굴되었다. 북성에서는 永明寺터에서 돌계단과 초석과 기와등 고구려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53) 長安城의 리방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한인호·리호, 『평양성과성안의 고구려도시리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조선고고연구』, 19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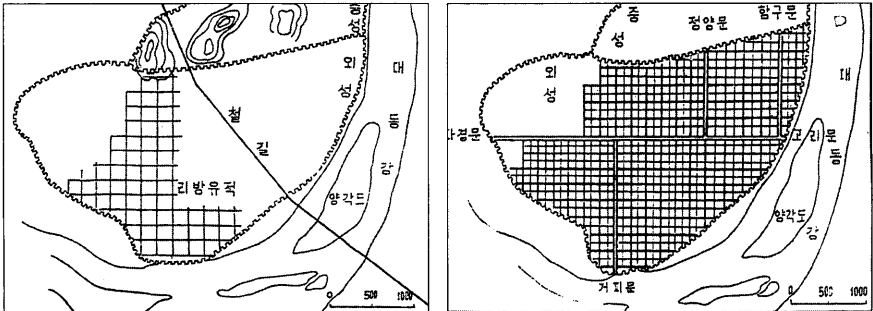
리화선, 『고구려 평양성 외성안의 리방의 형태와 규모 그 전개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9-1

×84m의 정방형으로 구획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참조>

한편 장안성의 구조가 갖는 특징은 당시까지 고구려의 도성 구조인 평지성과 산성이 세트를 이루는 구조를 하나의 성곽으로 결합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주민의 거주지를 둘러싼 羅城(외성)의 축조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산성+궁성+나성의 3중 구조라는 점에서 고구려 도성의 성곽구조 발전의 최종적인 완성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내성은 왕궁성으로, 중성은 행정성으로, 외성은 주민의 거주성으로, 기능에 따라 성의 공간 구조를 구분한 점도 유의된다. 아울러 이러한 복곽식 성곽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 목적일 것이다.⁵⁴⁾

장안성의 축조와 이곳으로의 移都로 인해 평양의 도성제는 큰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안학궁성과 청암리토성, 그리고 이 일대의 도시 구역은 여전히 도성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안성으로의 천도 이후 주된 왕

<그림 5> 평양 외성의 고구려 리방 유적과 복원도



전거 : 한인호, 『조선중세건축유적연구(삼국편)』

54) 장안성을 포함한 평양 도성 일대의 방어적 기능은 다음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漢山州少監 朴京漢은 平壤城내에서 軍主 述脫을 죽여 공이 첫째였으며, 黑嶽令 宣極은 平壤城大門의 전투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 誓幢 幢主 金通山은 平壤軍營 전투에서 공일 제일이므로 … 軍師 南漢山の 北渠는 平壤城北門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므로 … 軍師 斧壤의 仇祀는 平壤南橋의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므로 … 假軍師 比列忽의 世活은 平壤少城 전투에서 공이 제일이므로…”(『三國史記』 신라본기, 文武王 8년 10월조)

위 기사에는 平壤城, 평양성 大門, 평양성 북문, 平壤小城 등이 나온다. 여기의 평양성은 곧 장안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성내는 곧 외성 내부일 것이다. 平壤小城은 전투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아 대성산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 평양성 大門은 외성의 남문이나 서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북문은 북성의 성문이 아닐까 한다. 또 平壤南橋는 안학궁 남쪽의 대동강 나무다리터를 가리킬 것이다. 당시 평양성을 포위했던 신라군과 당군의 역할 분담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장안성의 羅城이 갖는 방어적 기능이나, 장안성과 대성산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방어체계를 구축한 점을 엿볼 수 있다.

궁성은 역시 장안성의 內城이었을 것이지만,⁵⁵⁾ 기존의 궁성인 안학궁성도 여전히 별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대성산성은 장안성의 외곽 방어성으로 기능하였을 것이며, 물론 안학궁성 남쪽의 里坊制 도시구역도 여전히 주민의 거주구역으로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양 일대의 도시 구역은 새로 구축된 장안성 구역과 기왕에 이미 거주구역이었던 안학궁성 일대가 양대 중심지를 이루고 있게 된다. 장안성과 안학궁의 중간 지대에도 도시가 확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지역에는 청암리 토성과 고분군이 있으므로 시가지가 들어설 공간은 없어 보인다. <그림 6 참조>

그러면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시가지의 행정적 편제는 어떠하였을까? 다시 말해서 도성의 행정구역인 5부의 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먼저 5부의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 京畿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평양을 중심으로 보다 확대된 지역 범위를 설정하는 견해가 있다.⁵⁶⁾ 그러나 백제나 신라의 예로 보아, 5부는 도성 내부로 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먼저 평양 전기의 5부는 안학궁 남쪽의 里坊制 시가지가 지역적 범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5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도시 구획에 있어서 안학궁성에서 대동강 다리에 이르는 도로가 동서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청암리토성에서 안학궁 남문에 이르는 도로가 남북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5부의 위치도 이러한 도로에 의한 구획과 연관되었을 것이다. <그림 3 참조>

다음 평양 후기의 장안성 외성의 경우에는 다경문과 고리문을 잇는 도로가 남북을 나누는 기준으로, 또 이 東西 도로에서 거피문으로 통하는 도로와 정양문으로 통하는 도로가 도시 구역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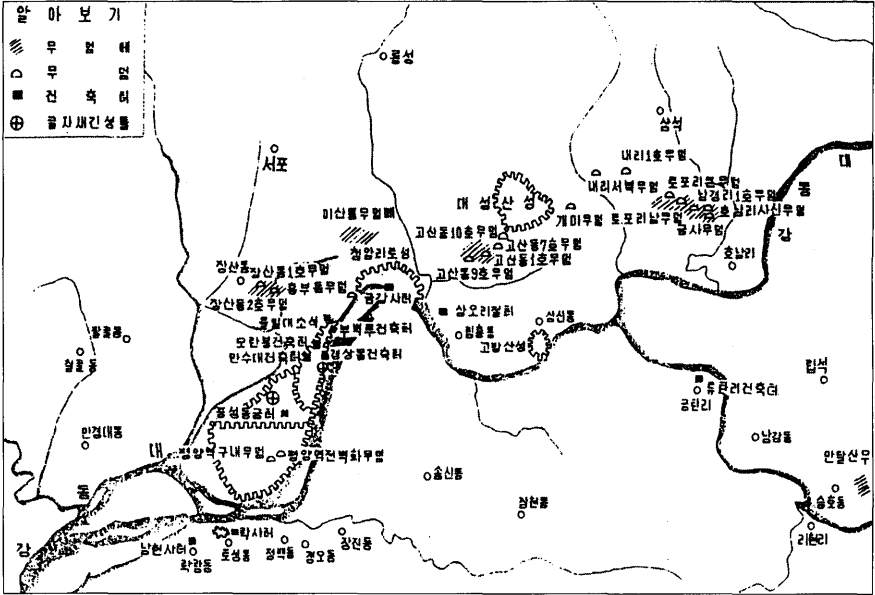
그런데 장안성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5부의 행정적 편제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기존 안학궁성 일대의 5부와 새로이 구축된 장안성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새로이 5부

55) 『周書』고려전, “治平壤城。其城，東西六里，南臨湞水。城內唯積倉儲器備，寇賊至日，方入固守。王則別爲宅於其側，不常居之”

『新唐書』고려전, “其君居平壤城，亦謂長安城，漢樂浪郡也，去京師五千里而贏。隨山屈嶺爲郭，南涯湞水，王築宮其左”

56) 손영종은 5부의 범위를 지금의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대동군·평원군·성천군의 일부 지역을 포괄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손영종, 앞의 『고구려사』1, 331쪽.

〈그림 6〉 평양 부근의 고구려 유적 분포도



전거 : 채희국, 『고구려역사연구』

를 재편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학궁성 일대의 5부와 장안성의 5부를 별도로 편제하였을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隋書』 고려전에는 “復有內評·外評·五部褥薩”이란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지만,⁵⁷⁾ 기사의 핵심은 5部 褥薩의 존재로서, 전국적인 범주의 5부를 설정하기 곤란하다면 수도의 5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의 도성이 시기를 달리하며 별도로 조성된 2개의 里坊制 시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5부의 행정적 편제도 2중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즉 위 『수서』의 기사와 연관시켜 보면, 장안성의 5부는 內評의 5부이고, 안학궁성의 5부는 外評

57) 이 기사에 대한 기존의 견해는 盧泰敦, 1996, 『5~7세기 고구려의 지방제도』 『韓國古代史論叢』 8, 227~230쪽의 정리가 참고된다. 기존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① 內評과 外評을 아우른 전국이 5부로 나뉘어져 있고 5명의 褥薩이 있다.
- ② 內評은 왕도, 外評은 지방으로 각각 5부로 나뉘어 10명의 褥薩이 있다.
- ③ 수도에 5부가 있고, 기내인 內評과 지방인 外評에 수 미상의 褥薩이 있다.

의 5부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각 部의 책임자는 禰薩이었다.

그런데 5부라는 행정구역은 고구려 후기 副都인 漢城이나 國內城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 국내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부터 도성의 행정구역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평양성으로 천도한 뒤에도 이러한 행정구역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漢城에는 적어도 6세기 중반경에는 5부제가 실시되고 있었음을 평양성 석각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⁵⁸⁾ 따라서 『수서』 고려전 기사의 內評 5부와 外評 5부의 구분은 각각 도성인 평양성의 5부와 副都(국내성·한성)의 5부를 가르킨다고 볼 개연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위 『수서』의 기사는 5부에 각각 육살이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國內城과 漢城을 外評의 5부로 본다면, 각각 5명의 육살의 존재를 상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기의 자료를 통해 보건데 국내성과 한성을 통솔하는 지방관 자체가 1인의 육살급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수서』의 기사에 보이는 內評과 外評의 5部 禰薩의 존재는 수도 평양성의 행정구역과 관련시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장안성의 5부를 內評의 5部, 안학궁성의 5부를 外評의 5부로 해석할 경우 두지역의 5부의 명칭을 어떻게 구분하였을까가 궁금해지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론은 불가능하다.⁵⁹⁾ 다만 양 도시 구역에 里坊制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위 편제 단위로는 5부라는 행정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안성의 축조와 移居는 방어상의 목적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평양 도성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양 후기의 도성제는 장안성만이 아니라, 장안성을 포함한 평양 도성 전반에 대한 공간 구조의 변화상과 그 성격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자료 조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후의 과제로 미루어둔다.

58) 「평양성석각」, “丙戌十二月 漢城下後 卍小兒文達 節自此西北行涉之”

이 석각명문의 년대인 丙戌年은 566년(명원왕 8년)에 비정되고 있으며, 漢城下後部가 文達의 소속부인지, 혹은 그가 지방관으로 부임한 지역명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당시 漢城에 5部라는 행정구역이 존재하였음은 분명하다

59) 5부의 명칭으로 東·西·南·北의 명칭과 前·後·上·下의 명칭이 전해지는데, 기존의 자료는 이들 명칭을 서로 대응시키고 있지만, 후 내평·외평의 5部 구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여쭙는다.

4.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고구려의 도성제는 천도에 따라 3차례의 변화상을 나타냈는데, 국내기 - 평양기(평양전기 - 평양후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내기 도성제에서 성곽은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인 환도산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산성과 평지성의 결합이라는 도성 구조는 고구려 도성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주된 거주성은 국내성으로 성안은 동서 도로 2개, 남북 도로 1개 등 3개의 도로에 의해 6구획되었다. 그중 중앙부에 왕궁과 관청시설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도의 행정구역인 5부는 각각 국내성 내의 각 구획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국내성 외곽 지역은 國原·東川原·中川原·西川原·美川原 등으로 구분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도성의 발전과정에서 거주구역은 국내성 외곽으로 확장되고, 이에 따라 5부 구역도 확장되었을 것이다. 또 국내성 북쪽에는 새로이 왕궁성이 마련되고, 동쪽에는 國社나 宗廟 등 종교적 성소가 시설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도성의 공간 구조는 ‘坐北朝南’와 유사한 형태가 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거주성 북쪽에 산성이 구축되고, 도성 전체가 ‘江南山北’의 조건에서 조성되었음도 유의된다. 이러한 형태는 평양천도 이후의 평양 도성의 공간 구조에서 다시 반복된다.

장수왕대 천도한 평양의 도성은 평지성인 청암리토성과 산성인 대성산성, 그리고 평지궁성인 안학궁성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안학궁성 남쪽에는 田字형 주민거주구역인 里坊制를 설정해 볼 수 있다. 이시기 5부도 이 里坊구역 내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안학궁과 里坊制 도시 구역은 늦어도 문자왕대에는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평양 도성의 공간 구성은 ‘坐北朝南’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北魏의 낙양성의 영향도 고려되고, 國內期 都城의 전통도 간과할 수는 없다. 국내기 도성 구조를 계승하는 측면에서는 산성과 평지성의 조합이라는 점, 나성이 없이 위성 방어체계를 구축한 점, 그리고 ‘江南山北’의 지리적 조건 등을 들 수 있다.

평양 후기의 중심 도성인 장안성의 특징은 전통적인 고구려의 도성 구조인 평지성과 산성의 조합 구조를 하나의 성곽으로 결합한 점과 나아가 주민의 거주지를 둘러

싼 羅城을 축조한 점이다. 즉 산성+궁성+나성의 3중 구조라는 점에서 고구려 도성 성곽구조 발전의 최종적인 완성 형태가 된다. 또한 장안성의 축조와 移都로 평양의 도성제는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평양 일대의 도시 구역이 크게 장안성의 외성 구역과 안화궁성 일대로 나뉜 것이다. 이에 따라 5部の 편제도 2중적인 구성이 되었을 것이다.

국내기 도성제와 평양 전기 도성제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내기의 도성 구성이 계승되면서, 한편으로 중국 도성제의 영향으로 里坊制를 실시한 점이 새로운 요소이다. 다만 里坊制의 상위 행정조직이 국내기 이래의 5부제라는 점은 고구려화된 里坊制라고 볼 수 있다. 평양 후기의 도성제는 새로운 도성인 장안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기존의 도성구역을 포괄하는 확대된 구성을 갖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안성 자체도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지만, 도성제가 2중성을 갖는다는 점은 유의된다. 이러한 장안성의 축조와 移都는 평양 도성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